

건축에 정신을 담자

Spiritualizing Architecture

방철린 / (주)인·토건축, 본협회 편찬위원장
by Bang Chul-Lin

1998년도가 시작되면서 전국이 온통 IMF의 회오리 속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건축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심각한 곤욕을 치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계획되었던 프로젝트도 대부분 취소되고, 또 진행중이던 프로젝트들마저 중단 사태에 들어가는가 하면 계속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감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다. 사무소는 시스템을 축소하고 인원을 줄이며 봉급을 삭감하는가 하면 사무실 임대료도 줄이려고 갖가지 아이디어가 속출한다. 좀더 싼 곳을 찾아 사무실을 옮기는가 하면 여럿이 모여 사무실 임대료 예산을 줄이려는 자구책들이 여기저기서 보여지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난국을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축계는 역사상 최악의 상태까지 내려간 우리 건축의 위상극복이라는 또다른 절벽을 눈앞에 두고 있어 마음이 편치 않다. IMF 한파는 세계가 돕고 우리 국민 모두가 합심하면 수년 안에 극복된다고 희망을 갖고 있지만 그후 열릴 건축계의 전망은 감리 분리며, 건설사 설계며, 설계시장 개방 등으로 참담하게 갈기 갈기 찢어진 지금의 우리 건축계의 위상을 놓고 볼 때 절대로 밝지만은 않다.

그칠줄 모르는 경제발전과 함께 새로운 건축물들이 필요하게 되고 많은 건축물들이 활발하게 지어지면서 많은 건축사가 배출되고 대학에서는 건축관련 학과가 이과 중 단연 톱을 달리고 있을만큼 인기 좋은 직종이 되었지만, 지난날에 이루어 놓은 건축을 뒤돌아보고 쌓아놓은 건축문화를 들추어 볼 때 지금과 같은 건축계의 위상을 남의 핑계로만 일축할 것이 아니라 우리 건축계가 얼마나 진지한 태도로 건축을 대하여 왔는지,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될 우리 건축의 길을 닦아가고 있는지, 우리 건축의 미래를 위한 기반은 준비하고 있는지 등의 반성과 함께 우리 건축의 위상을 제고시켜 IMF시대 이후의 험난한 국제 경쟁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다.

IMF시대 한파는 경제인들이 주도하고 국민들이 모두 힘을 합하여 동참하므로써 가능하다지만 건축문화 밑바닥 시대는 과연 누가 주도하고 누가 행하여야 벗어날 수 있는가. 정치가? 경제인? 프로젝트를 집행하는 관청? 건축주? 아니면 건설회사? 이상은 건축문화 시대를 보여주는 바로메터라지만 모두 건축문화 발전에 도움은 줄 수 있을지언정 주역은 될 수 없으며 때에 따라서는 방해요소로 급변하기까지 한다. 누가 뭐라해도 우리건축의 주역은 우리 건축계가 담당하여야 한다. 건축을 직접 생각하고 그리며 지어지도록 돌보아 주는 당사자만이 건축속에 철학을 담고 마음을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건축을 찾자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외국의 건축문화에서 차용해온 이론으로 우리의 건축을 만들어온 게 사실이다. 기반이 약한 우리 건축의 문화위에 마구 뛰어든 건축사조는 견잡을 수 없는 회오리를 만들고 있다. 더구나 외국건축가가 디자인한 건축까지 마구 들여오게 되어 서구 건축일색의 도시 속에 살고 있으며, 아니 이미 우리 도시는 외국 건축문화의 식민지화가 되어가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외국여행을 통해서 건문(?)이 넓어진 건축주의 욕심에서도 그렇거니와 외국의 건축사조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건축계가 더욱 큰 문제이다. 조금 크다는 설계경기 프로젝트들은 외국 건축가들까지 참가하게 되다 보니 외국 건축가에 뒤질세라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들을 흉내낸다. 수없이 많은 설계경기에서도 '그런 디자인류가 아니면 당선권안에 들지도 못한다' 고 심사위원들이 오히려 부추기기도 한다. 아니, 보통때는 그런 디자인들이 건축계를 망치고 있다고 하면서도 막상 심사 때는 그런 안을 뽑고 시치미를 떼기도 하니 더욱더 심각하다. 이렇게 들어온 외국의 건축문화가 건축의 본질적인 부분에 관한 것이라든가 개념적으로 우수한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와는 뿌리가 다른 건축사적 맥락 속의 한 단면이고 보면 이들이 과연 우리 정서와 적응이 가능한 것인가를 문제시하는 것이거니와, 지극히 피상적이고 형이하학적 모티브에 의한 외형적 모방이 또한 극성을 부리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한 것이다.

인간의 환경으로서 갖추어야 할 좀더 심미안적인 입장에서 연구되고 배려되어진 건축이 무엇인지, 심리적으로 인간화되고 깊이를 가진 참된 공간은 무엇이며, 좋은 비례로 조절되어진 건축의 형태는 과연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가에 대한 사고가 깊이 있게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 선조들은 이것들을 위하여 어떠한 건축적 행위를 하고 어떠한 건축적 요소에 그 뜻을 내포시켰는가 하는 것이 연구되어지고 계승의 문제와 함께 건축이 이야기 되어져야 마땅하다고 본다.

끝까지 감리하고 끝까지 돌보자!

큰 프로젝트는 큰 것대로 작은 프로젝트는 작은 것대로 처음 시작에서부터 집이 완성되어 질때까지 일관성있게 정신을 담고 마음을 담는 일 - 우리가 주력해야 할 일이다. 규모가 큰 프로젝트는 군침을 흘리는 사람이 많아져서 설계를 하지 못하면 못된 법을 앞세워 감리라도 해서 수입을 얻겠다는 부류들이 판을 그려치고 있다. 그들은 제사보다 제삿밥에 관심이 더하니 건축에 정신을 담고 마음을 담을 실력도, 능력도, 마음의 여유도 있을 수 없다. 오로지 제삿밥과 떡을 챙겨 다음 제삿집으로 옮기기가 바쁘다. 이들은 건축을 기술이나 안전 정도로만 생각하는 부류들이다.

갈릴레오가 지구는 둥글다고 주장하다 잡혀 다시는 둥글다고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법정에서 풀려나면서 '그래도 지구는 둥글다' 고 하였듯이 누가 뭐래도 감리는 설계자가 해야한다는 것이 진리인 이상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건축의 완성때까지 작품 속에 우리의 작가정신을 불어 넣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건축은 생명이 없는 무기물에 불과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건축문화의 밑바닥 시대는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다.

소형 건축은 어떠한가?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소형보다 대형의 프로젝트에 더 많은 관심을 쏟기 쉽다. 큰 프로젝트는 수입에도 도움이 되고 결과물이 금방 눈에 띄며 여러 대중이 이용하게 되므로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작은 프로젝트는 눈에 잘 띄지도 않고 소수인원만을 위한 것이면서 설계사무소 수입에 도움도 안되기 때문에 소홀하게 다루어지기 십상이다. 게다가 작은 프로젝트라고 어디 일의 양이 크기에 비례하는가? 작은 애기라도 커다란 어른에 비유하면 덩치만 작았지 있을 것은 다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좋은집(≠비싼집)을 짓게 해 주려면 큰집에 비해 절대로 정성이 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설계비를 제대로 받더라도 그 비용을 감당하기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투자에 비해 얻어지는 결과가 턱없이 작게 느껴지기 쉽다. 그러나 작은 프로젝트들도 건축주에게는 귀중한 재산이며 적은 수의 사람이라도 엄연히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이 작은 집들과 큰집이 어우러져 도시가 됨을 생각해 볼 때, 아무리 작은 프로젝트라도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생각해야 한다.

바쁘다는 핑계로, 돈이 안된다는 핑계로, 이들 작은 일들을 돌보지않고 대충 내팽겨치고 감리를 남한테 미룰 때, 외국 작가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이고 우리 건축의 미래는 설 곳을 잃게 되어 IMF의 한파보다 더 무서운 건축문화의 식민지화는 급속도로 진전될 것이다.

지금 우리 주위를 다시 살펴보자.

작은 프로젝트라는 이유로 감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없는지...

우리 건축의 미래를 작은 프로젝트부터 다시 준비하자.

건축을 가슴으로 하자.

건축에 정신을 담자.